

월드컵 소식

E조가 진짜 '죽음의 조'

伊-美-체코-가나 혼전

2006 독일 월드컵 조별리그 레이스가 중반을 향해 치닫는 가운데 E조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4개 팀이 물고 물리는 접전이 이어지면서 강호들이 득실거리는 C조를 능가하는 최고의 '죽음의 조'로 떠오른 것이다.

와 '동유럽 강호' 체코의 우세 예상을 깨고 안갯속에서 빠졌다. 아프리카의 '검은 별' 가나의 돌풍과 미국의 뒷심이 혼전의 원인을 제공했다. 이탈리아와 개막전에서 패했던 가나는 18일 세계랭킹 2위인 체코를 2-0으로 제압하는 이번 대회 최대 파란을 일으켰다. 또 1차전에서 체코에 0-3으로 완패했던 미국은 이날 이탈리아와 대등한 경기를 펼친 끝에 1-1 무승부를 이끌어내 겨겨가던 16강행의 마지막 불씨를 살렸다.

한경기 3명 퇴장 월드컵 역사상 4번째

미국 - 이탈리아전

2006 독일월드컵 미국과 이탈리아의 E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나온 한 경기 3명 퇴장은 월드컵 역사상 4번째인 것으로 밝혀졌다. 18일(한국시간) 카이저스라우테른에서 벌어진 경기중 이탈리아의 다니엘레 데로시가 미국의 공격수 브라이언 맥브라이드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 큰 상처를 입혀 퇴장을 당했다. 또 미국의 수비수 파블로 마스트로에니가 과격함 때문에 미국의 에디 포프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다.

로 각각 퇴장 명령을 받았다. 앞서 1998년 프랑스월드컵에서 남아프리카-덴마크전, 1954년 스위스월드컵에서 헝가리-브라질전, 1938년 프랑스월드컵에서 체코슬로바키아-브라질전에서 각각 3명의 퇴장 선수가 나왔다. 한편 데로시는 이번에 국제축구연맹(FIFA)이 이번 대회부터 엄중하게 적용키로 한 '팔꿈치 가격 퇴장' 1호가 됐다. 거친 축구를 구사하는 이탈리아는 2002년 한일월드컵 한국과의 16강전에서도 비에리가 수비수 김태영과 공중볼을 다투다 안면을 팔꿈치로 가격,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교묘한 팔꿈치 반칙을 했다.

아테바요르 "스위스 해볼만 하다"

美 ESPN 보도

토고 축구 대표팀의 간판 스트라이커 에마누엘 아테바요르가 19일 스위스 전을 앞두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미국의 스포츠전문 방송 ESPN은 18일(한국시간) 인터넷 보도를 통해 "아테바요르가 '스위스 전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테바요르는 ESPN과 인터뷰에서 "한국에 1-2로 졌지만 아직 두 경기가 남아 있다. 스위스를 상대로 승점 3점을 꼭 따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테바요르는 또 이 인터뷰에서 '토고는 아테바요르의 원맨 팀'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항변했다. 아테바요르는 "동료들이 나를 원하는 것 만큼 나도 동료들을 필요로 한다. 우

리는 하나의 팀"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위스의 야코프 페비 쿤 감독이 토고전을 앞두고 상대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1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쿤 감독은 "토고의 승리의 재물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며 "에마누엘 아테바요르와 모하메드 카테르 등 위험한 공격수를 보유한 토고는 강팀"이라고 말했다.

6월 19일 스위스 예선 선발 라인업. 토고 선수: 에마누엘 아테바요르(FW), 94.2.26 생, 190cm, 79kg, 95년생. 스위스 선수: 알렉산더 프라이(FW), 79.7.15 생, 175cm, 72kg, 88년생. 경기 결과: 토고 0-2 스위스. 득점 선수: 프랑켄 (61'), 35'. 경기 시간: 22분 34초, 33분, 59분. 경기 결과: 4-4-2. 선수명: 아코르, 마담, 베르나디, P.데인, 나탈레, 아사이우, 슈트렐러, 카리나스, 주루, 아말루, 토마오, 카레로, 프레이, 포울, 선데로스, 장카리, 세이아, 비키, 마담.

튀니지 '경제 축구' 표본

유효 슈팅 2개에 2골

독일월드컵축구 조별리그 2차전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H조의 튀니지가 '경제적 축구'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별리그 21경기가 끝난 18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현재 튀니지는 단 2차례 유효 슈팅을 어김없이 골로 연결해 골 성공률에서 100%를 달리고 있다. 이와 함께 적은 슈팅 수로 많은 골을 뽑아낸 팀은 C조의 '영원한 우승후보'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는 2경기에서

유효 슈팅 13개로 8골을 뽑아내며 득점 선수를 달리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제 축구가 빛을 발한 경기는 지난 16일 밤 열린 세르비아-몬테네그로와 조별리그 2차전으로 유효 슈팅 9개에 6골을 뽑아내는 무시무시한 골 결정력을 과시했다. 이에 반해 10개 팀은 아직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 앙골라와 파라과이, 폴란드, 세르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미국은 조별리그 2차전까지 치렀지만 아직 골 맛을 보지 못했고 프랑스와 스위스, 크로아티아, 우크라이나 등 4팀은 2차전에서 대회 첫 골을 노리고 있다.



진흥고가 전남 북일고와의 경기에서 4-3으로 역전취득 6회 2사 1, 2루상황에서 구원 투수로 나선 '진흥고 에이스' 정영일이 145km를 오르내리는 강속구를 던지며 북일고의 추격의지를 뿌리쳤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진흥 vs 경동, 부산공 vs 구미전자공

오늘 4강 격돌



'호남야구의 대표주자' 진흥고와 '서울대표' 경동고가 결승행 티켓을 놓고 양보할 수 없는 한판 대결을 벌인다. 또 부산공고와 창단 후 첫 전국대회 4강에 오른 구미전자공고도 결승으로 가는 길목에서 맞붙는다. 18일 광주무등경기장에서 열린 제13회 무등기전국고교야구대회(광주일보·대한야구협회 공동주최) 5일째 8강전에서 진흥고와 경동고, 구미전자공고, 부산공고가 나란히 승전보를 올렸다. ▲천안북일고 3-4 진흥고=진흥고는 0-2로 뒤진 4회말 선두타자 나성용의 큼지막한 좌월 솔로포로 공격의 불꽃을 뿜었다. 5회초 1점을 더 내준 진흥고는 5회말 박상현-홍석용의 연속안타와 나성용의 볼넷을 묶어 만든 1사 만루서 강병운의 중전 적시타로 2점을 추가, 3-3 동점을 만들었다. 진흥고는 계속된 2사 2루서 강하승 타석 때 상대 투수의 폭투를 틈타 1점을 더 보태며 역전에 성공했다. ▲경동고 5-0 원주고=경동고는 1회초 김경근의 좌중간 솔로포 한방으로 초반 기선을 제압했다. 경동고는 1-0으로 1점차 살얼음 승부가 계속되던 8회 2사 2루서 정희준의 좌익수 키

를 넘기는 2루타로 1점을 더했다. 이어 9회에도 볼넷과 몸에 맞는 공을 엮어 2점을 더 날렸다. ▲구미전자공고 2-1 대구고=구미공고는 0-1로 패색이 짙던 8회초 1사 후 최성환-장웅의 연속 볼넷으로 역전의 실마리를 잡았다. 다음타자 추승민 타격때 상대투수 임현준의 폭투에 편승, 누상의 주자가 2, 3루로 무임 선착하는 행운도 뒤따랐다. 추승민은 마지막 찬스를 살려 좌익수 앞에 푹 떨어지는 '바가지 안타' 로 동점을 엮어냈다. ▲화순고 1-2 부산공고=부산공고는 4회 이영일의 좌중간을 가르는 3루타에 이은 양지원의 희생 플라이로 선취점을 얻었다. 5회 화순고에 1점을 헌납한 부산공고는 1-1로 팽팽하게 맞선 7회 이영일이 내야안타와 도루를 묶어 만든 2사 2루서 정현호의 우전 적시타로 결승점을 뽑아냈다. 한편 19일 오후 1시부터 열리는 진흥고와 경동고의 준결승전은 KBS 스키에서 중계 방송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의 무등기) <4강> 진흥고-경동고(13시) 구미공고-부산공고(15시 30분) <양쪽이 선공-1루쪽 더그아웃-이상 무등경기장>

역도 김준선 3관왕

<광주체육중 3>

전국소년체전 이틀째 광주 금 15·은 7·동 12개 전남 금 8·은 10·동 6개

레슬링 남중부에서는 그레코로만형 46kg급 신병철(체육중 3)이 총복 최재민에게 패해 어렵게 은메달에 머물렀으며 펜싱 여중 사브르 단체전에서 풍암중이 동메달, 조정 여중 싱글스컬에서 김다영(대성여중 3)이 4분15초11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전남은 이날 울산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육상 남초 고편안(목포서부초 6)이 포환던지기에서 15m 09를 던져 육상에서 유일한 금메달을 획득했다. 또 사이클 여중 500m독주에서 황현지(나주다시중 3)가 39초468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전남은 이날 울산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육상 남초 200m결승에서 24초 52로 금메달을 획득하며 17일100m 금메달에 이어 2관왕에 올라 육상 최우수선수에 선정됐다. 황준호도 이날 문수실내수영장에서 열린 남중 자유형 200m에서 1분56초33으로 17일 남중 자유형 100m 금메달에 이어 2관왕에 등극했다. 광주는 또 태권도 여중 핀급에서 김민교(체육중 3)가 전남의 김동이를 결승에서 꺾고 금메달을 추가했다. 이밖에 여중부 체조에서는 박은경(체육중 3)이 개인종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울산=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KIA 투타 붕괴... LG에 1-3 패



KIA의 '원투 펀치' 세스 그레이 싱어가 또 무너졌다. 지난 13일 현대전에서 2.2이닝 8실점으로 난타당했던 그레이 싱어는 18일 잠실구장서 열린 2006 삼성 PAVV 프로야구 LG전에서도 선발 등판해 7이닝 4안타, 3실점으로 패전투수가 됐다. 시즌 4승 7패. 그레이는 0-이닝 5회 1사 2루서 LG 권용관에게 결승 투런포를 헌납하며 제구력이 크게 흔들렸다. 이어 1-2로 뒤진 7회에도 2사 1루에서 LG 조인성에게 2루타를 허용, 1점을 추가 실점했고 8회에 이상화에게 마운드를 넘겼다. KIA는 그레이의 '부진투' 와 함께 타선의 집중력 부족도 패인이 됐다.

KIA는 LG보다 많은 7안타를 때려냈지만 6회 1사 2루에서 장성호의 중전 안타로 1점을 만회하는 데 그쳤다. 5회와 9회를 제외하고 매회 주자를 내보냈지만 2번의 병살타가 겹치면서 추격 의지를 잃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Table with columns: 순위, 구단,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연속. Rows 1-8 showing KIA and LG stats.

이승엽 23호 팽... 홈런 선두 질주

하루를 쉬었던 이승엽(30·오미우리 자이언츠)의 홈런포가 다시 불을 뿜었다. 이승엽은 18일 도쿄돔에서 열린 일본 프로야구 라쿠텐 골든이글스와 인터리그 경기에서 2회말 선두 타자로 나서 우중월 솔로

홈런을 때려냈다. 이로써 이승엽은 시즌 23개째 홈런으로 홈런 선두를 질주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함평다이내스티CC 월드컵 이벤트

○"사계절 양간다 골프장 함평다이내스티CC(대표 오영내)가 태극전사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고 객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월드컵 대표팀의 16강 및 8강 진출 기원 이벤트로 지난 12일부터 마제스티 16번홀에서 올 파를 하는 팀에게 즉석에서 축하 행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라운딩이 끝난 후 클럽하우스 레스토랑에서 일품요리 및 맥주 등 푸짐한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한국대표팀의 16강 진출이 결정되면 그날부터 임페리얼 8번홀에서 같은 형식의 8강진출 기원 이벤트를 계속 할 예정이며 축하 기념품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함평다이내스티CC에서는 6월 한



붉은악마 응원복을 입은 함평다이내스티CC 임직원들이 18일 한국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달동안 평일 1부 시간(오전 8시50분 이전)에 내장하는 모든 고객에게 2만원씩을 할인하고 있으며, 토요일 조조팀(오전 5시 30분 이전)과 일요일 15시 이후 내장한 팀에게는 3만원씩을 할인하는 특별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또 함평다이내스티CC는 월드컵에 출전한 태극전사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월드컵 기간 동안 모든 종사원들이 붉

은악마 티셔츠를 착용하고 있다. 오영내 대표는 "전 종사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태극전사들을 응원한다면 16강 진출은 물론 8강 진출까지도 가능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인힐스CC 승리기원 행사

○파인힐스CC(대표이사 김현수)가

월드컵 시즌을 맞아 대한민국 승리기원 월드컵 이벤트를 선보이고 있다. 파인힐스CC는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신화 달성을 염원하며 지난 5월부터 주말영양일과 대한민국 월드컵 경기가 있는 날은 전 구성원(캐디+직원)이 월드컵 티셔츠를 착용하고 있다. 또, 기존 그린깃발을 월드컵 공인구와 KOREA가 새겨진 붉은색 승리기원 깃발로 전면 교체해 골프장에서도 월드컵 응원 열기를 느끼실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월드컵 기간중 태극전사가 승리할 때 마다 내장 고객에게 '대한민국 승리기원' 생맥주를 무제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 경기가 있기 전날 내장객 전원에게는 붉은 악마 스카프를 제공하고 이날 내장객중 이글을 한 고객에게는 팀가이스트 보급형 추구공을 주기로 했다. 한편, 파인힐스CC는 3차정회원 20명을 개인 2억원(법인 4억원)에 오는 6월말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